

중부권

담양 '소쇄원 관리권 다툼' 심화

郡 "관람료 직접 징수할 것"
중중 "소쇄원 폐쇄할 수도"

군의회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통과

담양 소쇄원(瀟灑園·국가지정 명승 제40호)의 관리권을 놓고 수년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중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기로 해 양측간 마찰이 우려된다.

담양군은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사업 조례가 군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9일부터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문화재청이 소쇄원의 관리주체로 담양군을 지정할 때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비롯, 보수·복원 등 소쇄원 보존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 양씨 문중에서 주차료와 별도로 관람료를 징수해 방문객들로부터 관람료 단일화 등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담양군은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사

양군이 이를 불허하면서 표면화됐으며, 이후 2005년 중중 측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 2008년 5월 1심판결에서 문화재청과 담양군의 관리권이 인정된데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중중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중중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상고한 상태다.

중중 관계자는 "소쇄원은 500년 동안 대대손손 거주하며 관리해온 엄연한 사유물"이라며 자치단체가 이례적으로 직영 운영하는 것은 도리가 맞지 않다고, 강행할 경우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소쇄원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양 소쇄원은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정원으로, 1983년 국가 사적 제304호로 지정됐다.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승격됐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pb17@



"무력무력 자라거라" 13일 나주시 동강면 월현마을 들녘에서 주민들이 인삼씨를 파종하고 있다. 인삼수확은 5~6년 뒤에 하게 된다. /나주=위정락기자 jrwi@

나주교육청 '관사 신축' 파문 확산

감사원 자료 요구...경찰도 수의계약 수사 착수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교육비리 수사에 따라 나주 교육청의 역대 관사 신축문제(본보 4월 9일자 11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나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에 관사신축 관련 사업집행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다음주중 감사원측 관계자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또 나주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나주교육청을 방문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내부 구연한 남아있는 밀정형 관사를 허물고 1억8천여 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새롭게 관사를 신축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기, 기계설비 및 비품 등

으로 5천여만원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통해 발주한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이 감사원과 경찰이 발 빠르게 진위 파악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교육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나주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2천만원 이하 시설공사를 비롯해 물품구입, 각종용역 사업 등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나주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측의 자료요구는 나주교육청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교육비리 수사확대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작은 비로 품질 떨어지고 생산량 줄어

장흥 표고버섯 농가 울상

표고버섯 주산지인 장흥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3월 이후 잦은 비와 번덕스런 날씨 영향으로 버섯 품질이 떨어질 실상이 관찰되어 울상이다. 13일 장흥지역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수확기(3~5월)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4일 주기로 내린 비 때문에 '백화고'와 같은 상품(上品) 버섯이 생산되지 않고 대부분 상품성이 떨어진 '향신' 이하의 표고버섯만이 출하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4월 현재 정남진 농협에 위판된 실적 거래를 보면 예년 평균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표고 최고 상품인 백화고(kg당 평균 12만원대)가 올해는 단 1%도 출하되지 않고, 90% 이상이 하품인 향신(kg당 1만5천원)이나 등의(等外) 등으로 인할

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남진 정남진농협 표고 판매 센터장은 "올 들어 2차에 걸쳐 실시한 입찰에서 줄어든 평균 kg당 2만6천원대에서 올해는 1만9천원대로 7천원이나 떨어져 생산농가들이 농가소득은 물론 수출(소포장)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표고버섯 수확기에 잦은 비가 내림에 따라 표고버섯이 활착 개화(일명 소고기 마블링 성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색깔이 검게 변색된 상태로 제품이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흥지역은 470여 표고버섯 농가에서 연평균 600t(200억원)을 생산, 전국 생산대비 15%, 전남 생산대비 85%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순장학회 올 장학금 1억3천만원 전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1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생 131명을 비롯해 관외 고등학생 10명, 관내고 졸업 대학생 15명, 관외고 졸업 6명, 생활고난자 2명 등 총 164명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 기

금운영 결산(안) 및 2010년 예산(안), 정관 개정 등 7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장학생 선발 ▲1년 장기장학생 선발방안 ▲지역장학회 제도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실시했다.

장학회는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하반기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정순우기자 unsu@

강진 월동 씬배추는 '金배추'

서울 가락시장 8kg들이 최고 2만9천원

강진에서 재배된 친환경 월동 씬배추가 고가에 출하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경부터 울진지역에서 수확이 시작된 월동 씬배추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8kg들이 한 상자당 최고 2만9천원, 평균 2만2천원에 경락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월의 기후가 나빠 타지역의 업체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채소류 단가가 상승해 반사이익을 봤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후가 따뜻한 지역인 신전면에도 월동 씬배추 재배농가를 조성하는 등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울진면에서는 현재 하우스 월동 씬배추가 6농가에서 5천㎡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각 재배농가당 2천만원 이상의 조수익이 기대된다. 재배 농민들은 지난 1월 17일 개 배추모종 정식을 실시해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지하수 수확을 돌려서 온도를 3℃ 이상 유지해 동해(凍害)를 방지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최영창(53) 울진면 삼당소장은 "2~3월의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배농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우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 까닭에 작황이 좋았고 농가소득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 성전산단 66만㎡ 규모 조성

전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약...500억원 투입 2013년말 완공

강진군의 성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남개발공사와 성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남도와 강진군은 산단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국고 확보, 인·허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고, 전남개발공사는 산단 조성업무와 분양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성전산업단지는 66만1천㎡(2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3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성전 산업단지는 현재 51개 업체가 입주 확정 또는 검토의사를 밝혔고, 12개 업체와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조기분양을 목표로



산단 조성과 투자유치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성전산업단지 조성되며 30여 개 업체가 입주해 1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2천500여 명의 인구유입효과를 거두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남성성기능강화제 advertisement. Features text about male health, a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1588-4102, 010-7770-8138.

성기능강화제 advertisement. Features text about male health, a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1588-4102, 010-8558-4114.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op' real estate. Includes a large tabl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 0621368-0789.